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람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철파교회는 참매하는 공동세입니다.

서울시 용신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33-5254 (시무실) 717-2605 (담임복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6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다함께
예배로의 부름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8. 내 영혼아 곧 깨어 ·····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로우신 주님, 녹색의 물결로 일렁이던 여름이 지나고 나니 만
물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수해를 겪었
으면서도 때가 되니 황금빛으로 익어 가는 가을 들판이 장엄합니다.
우리네 살림살이에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설 새도 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장의 도대를 구드는 것은 구함이 함께 제점을 될게 때문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은총의 샘물이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주시는 주
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척박하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다섯 가지 색이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가 귀를 멀게 한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만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 교 독 문 ······ 17. 시편65편 ····· 다함께
♠ 영 광 송 ······ 다함께
대표기도 I. 김지은 선생 II. 이지훈 청년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다함께
성경봉독 기병조 시년 기병조
HI 1611 6 BOL OL
찬 양 ···································
말 씀 I.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이성운 전도사
" II. 소명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 다함께
71B71Z

헌신의 찬송 355.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	함께
헌금봉헌~찬양 : 류건형/김대근> 다	<u></u> 활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 <u>·</u>	로자
공동체 소식인	로자
♣ 평화의 인사 ···································	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다	함께
♣ 보냄의 말씀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여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안일함과 두리 을 떨쳐 버리고 주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들과
다 함 께: 아멘. 주님이 명하시니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겠습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와 사랑을 가르치는 막대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눈 로 이웃을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역사를 보며 살겠습 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의
♣ 축 복 ······· 담임	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15)/김재흥 목사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3)/김기석 목사
기도 : 인도자	기도 : 최윤선 집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김재흥 목사	문영혜 집사	인도자
예 배 위 원	김기석 목사	구성실 장로	김준호 권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 철	조문규	강순배	진정숙	정진경
84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안길상	곽혜자	이순정	박효선

■ 믿/은/으/로/읽/는/글/

한 그루 능금나무

"선생님, 요즘 들어 무슨 일을 함께 하자거나 도와달라는 이들이 연이어 저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했는데 그 사업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 "뭐라고 대답했느냐?"
- "아시잖습니까?"
-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묻는다고 생각하느냐?"
- "죄송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성실성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들어가면 그 순간 대화 전체가 거짓으로 되고 만다. 국 한 솥에 석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국이 어찌 되겠느냐? 대화에 섞여든 한 마 디 거짓말의 효과가 그와 같다."

- "알겠습니다."
-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 "내가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어요."
- "잘했다. 너는 들판에 서 있는 한 그루 능금나무다. 새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 "그럴 수는 없지요."
 -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준 것은 잘한 일이라는 말이다."
- "그러면, 그들을 제가 도와야 합니까? 한 사람의 청은 벌써 거절했는데요."
 - "그것도 잘했다."
 - "예?"
- "너는 능금나무다. 새가 너에게 오렌지 향기를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느냐?"
 - "없지요."
 -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 했으니 또한 잘한 일이라는 말이다."
 - "아, 그렇군요."
 - "앞으로도 자주 그런 이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추되 한 치도 제 자리를 옮기지 않는 나무를 생각하거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몸을 바꾸되 제 천성을 다른 무엇 으로도 바꾸지 않는 물을 생각하거라. 너는 나무요 물이요 바람이요 구 름이다."

"알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앎'이다. 누가 무 엇을 너에게 요청하든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럴 수 없으면 거절하여라."

"예"

- "아무 것도 미리 걱정할 것 없고, 아무 것도 미리 궁리할 것 없다."
- "예. 선생님."
- "우주가 동원하여 너를 돕는다. 고마운 일 아니냐?"
- "그렇습니다."

외로움

"한 후배가 산을 오르다가 저에게 '형님, 외로워요'라고 말하는데 아무 대꾸도 못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입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았느냐?"

"예, 그랬지요. 저 나무들을 보라고, 저마다 홀로 서 있지만 더불어 있지 않냐고, 나무가 있으니 또 바람도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다가, 제 말이 그 친구 가슴에 닿는 것 같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잘했다."

- "선생님이 저였다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도 외롭다네."
- (이 글은 이아무개 목사의 <<그래도 쓸쓸하냐>>에서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막13:11]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번째 글에서는 '나도 외롭다'하시는 분의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 마/은/으/로/읽/는/글

순례의 길

주님의 성적(聖蹟)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난 지해를 세어 거듭 거듭 몇 해였던고! 세월은 가고 사람은 쇠하는데 돌아보니 걸은 길이 많지 않아라.

앞으로 가고 가서 겟세마네에도 골고다에도 울고 엎드리고 서서 피 흘린 곳 낱낱이 참배함이 있고자 하나 이 걸음 어이 이리도 지지(遲遲)한고!

이러다가 서산에 해는 기울어지고 그나마도 다리에 힘조차 말라 버리면 어찌할건고! 그러나 걸음은 떠도 마음은 급합니다.

내 걸음이 뜬 까닭은 안과 밖으로 거리끼는 막대기와 가로질린 돌이 수 없이 많은 까닭이올시다.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이용도 목사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귽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권혁순 박혜경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이광용 형인순 백승민 유명숙 이봉옥 박홍엽 최종원 정완수 김재광 최숙화 김정길 임 영 정경례 박영숙 맹은선 왕성환 강순배 김명규 무명1

월정헌금:

정미경 김남종 오복순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김 극 고숙이 이봉배 전영자 홍복선 문홍일

감사헌금:

김기석 한상익 정영선 이한림 김명희 김준호 곽혜자 이재문 김병준 이종현 문복순 김용진 왕성환 강순배 이응구 한선희 오진훈 노순옥 김대환 백혜숙 김명규 이이레 무명2

생일감사헌금: 임원민 이순정 구도헌금: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최 희 영	김 애 경
베 들 레 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김 미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서 원 금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교 회	김 진 경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진 정 숙	안 정 숙
베다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박 홍 재	곽 권 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김 희 우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강 순 배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구 성 실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이 영 옥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교 회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임 창 선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1. 청년주일 :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새 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임원회 : 예배 후 9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 3. 환경회복 세미나 :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은 우리의 마 땅한 책임입니다. 28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아현교회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4. 결혼 : 김재경/박은정(안정숙 권사 장녀)의 결혼식이 9월30일(토) 오전 11시 30분에 용산웨딩코리아에서 열립니다. 축하합니다.
- 5. 신앙실천 : 계절이 바야흐로 추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의 곁가지들을 잘라내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 헌화 : 정두리 권사 (고 백유현 성도 3주기)

10월	영접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